

尹정부 임명·법무부 검증 '1호 대법관' 누구...오늘 후보 압축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 소집 예정 후보군 3~4명 압축...최종 1명 누구 심사동의자 판사 출신 비중 압도적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임명장을 받을 대법관 후보군이 최종 압축된다.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받는 첫 대법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후보군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된다.

후보추천위는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정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통상 3~4명의 후보자가 추천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데, 김 대법원장이 검토를 거쳐 약 10일 뒤에 최종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

명 제정한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초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만큼 대법관도 검찰 인사가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심사에 동의한 21명 중 검찰 출신 인사는 1명도 없었으며, 법관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판사 출신이 12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계에 몸을 담았던 김 대법관이 물러나면 판사 출신 대법관의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상욱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중

검찰 출신 인사가 없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검증을 받는 대법관 후보자라는 이유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폐지로 법무부가 공식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맡게 됐는데, 일각에선 검찰이 사법부의 인사검증까지 하는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인사를 단장으로 임명했으며,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전혀 받지 않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김 대법관을 시작으로 임기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과 김 대법원장은 2023년 각각 임기를 마친다. 2024년에는 안철상·민우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2026년에는 노태약·이흥구 대법관이 퇴임



하, 천대법관 임명 시점인 9월 9일 윤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될 전망이다. 한법제판소의 경우에는 2023년 이전에 재

이준석, 무등산 등반... "광주시민께 죄송, 약속 잊지 않겠다"

'잠행' 이준석, 광주 무등산 등반 사진 게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치 6개월' 징계받은 뒤 잠행을 이어가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광주 무등산 사진 산행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님은 광주 무등산 서석대에 있다'는 위치 표시를 하며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이같이 올렸다.

그는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이야기했었다"면서 "앞으로도 무등산의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무등산 산행 사진도 함께 올렸다. 사진에서 이 대표는 등산복이 아닌 티셔츠·바지 차림에 다소 헬스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의 무등산 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설날인 2월 1일 무등산에 올라 "이번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20% 이상 득표해 많은 지지를 받아 이제 지역 구도가 깨졌으면 좋겠다"며 지역주의 타파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는 꾸준한 호남 구애를 펼쳐왔다. 호남 지역 200만 가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손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며, 호남 도서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며 광주 복합쇼핑몰, 흑산공항 등 맞춤형 공약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가 내려진 8일 이후, 별다른 공개 행보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온라인당원 가입 권유 글을 올려 2030의 결집세를 확보해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北 "尹정부, 통치 위기 수습하려 신북풍"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우리 정부와 여권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 정권 대북 대응 사안 관련 의혹 규명 분위기에 대해 '신북풍'으로 지칭하면서 "허위, 기만으로 통치 위기를 수습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13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최근 서울 용산에 등지를 뜬 윤석열과 그 패당이 일으키는 신북풍"을 언급하고 "동족 대결 신북풍 속에 남조선(한국)의 보수 열거지들이 때를 만난 듯 패자를 울리며 날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복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등을 지적하고 "지난 시기 남북 사이 제기된 모든 사건들이 야당의 대북 굴종 정책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이들을 북 추종 세력으로 몰아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눈도 뜨지 못한 헛강아지 윤석열이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무색케 할 정도로 광란적으로 벌려 놓고 있는 신북풍 물이든 현 남조선 정권이 처한 심각한 통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구시대적인 교활한 수술"이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용산에서 밀려오는 신북풍은 극악한 동족 대결 정책을 추구하며 전쟁 광기를 부려대는 윤석열과 남조선 보수 패당에 대한 민심과 여론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너절한 기만

국"이라고도 했다.

또 "우리에 대한 적대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이전 정부 대북정책을 굴종, 실패로 몰아붙이며 저들의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합리화하고 보수세를 규합해 강경책 추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북풍은 치졸한 정치 보복 놀음으로 궁지에 빠진 윤석열과 보수 패당이 민심 이목을 분산시켜 반정부 기운을 녹여내 보려는 심산에서 고안해 낸 서퍽짜리 기만극"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심 환원이 커지고 집권 초부터 심각한 통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윤석열과 그 패당은 역대 보수 패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써먹던 상투적 수법인 북풍 물이로 반대파를 탄압하고 공안 정국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윤석열과 보수패당이 신북풍 물이로 그 무슨 호기를 맞아보려는 건 선임자들의 죄악과 파멸의 전철을 이어 스스로가 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은 미친 짓거리"라는 비방도 내놓았다. 더불어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신북풍으로 궁지에 처한 대내 통치 위기를 수습하려는 건 다 깨진 돛을 달고 대양을 횡단하려는 것 같이 미련한 짓"이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